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8.8(금) ~ 2025.8.14(목)

제공일시 2025 8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8.8(금) ~ 2025.8.14(목)

글로벌 정책

1. 미국, IMO 회원국에 경고...“탄소중립 지지하면 보복할 것”

- 미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에 강하게 반대하며, 지지하는 회원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함. 해당 프레임워크는 해운 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 체계로 최종 채택을 앞둔 상황임
-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손 더피 교통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 에너지업체, 해운사, 관광객에게 비용을 늘리는 조치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제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이 회원국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은 국제 해운 규제 논의에서 자국 산업의 부담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향후 IMO 결의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디넷코리아 2025.8.13\)](#)

2. EU, 플라스틱 조약서 ‘생산 제한’ 사수...협상 종료 사흘 앞두고 교착 심화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제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제시카 로스웰 EU 환경위원은 “합의를 위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무 제안이나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산 제한 없는 합의문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함
- EU와 100여 개국은 채굴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법적 구속력 있는 생산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란 등 산유국은 생산 제한에 전면 반대하고 있음

[\(임팩트온 2025.8.13\)](#)

3. 美,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재개...연간 1.4조원 규모

- 미국 연방고속도로청(FHWA)이 ‘국가 전기차 인프라(NEVI) 포물러 프로그램’의 중간 최종 지침을 발표하며 약 50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을 재개함.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기존 지침 철회로 사실상 중단됐던 자금 집행을 정상화한 것임
- NEVI 프로그램은 2022~2026년 매년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각 주에 배정해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임. 연방 정부 지원이 재개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전자신문 2025.8.12\)](#)

국내 정책

1. 12월부터 민간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신재생설비 의무화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오는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 확보를 의무화함
- 개정안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저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함. 행정예고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이후 확정고시 될 예정임

[\(대한전문건설신문 2025.8.12\)](#)

2. 포스코이앤씨 참사 후폭풍...중대재해 기업에 '압수수색 칼날'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함
-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 정부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사법적 대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매일경제 2025.8.12\)](#)

3. 국내 녹색채권 발행 62% 급감...대안으로 '전환 금융' 시동

- 국내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급감함에 따라 금융 당국이 대안으로 '저탄소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임. 이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제도임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녹색채권 발행 건수는 2021년 119건에서 2023년 87건으로 26.89%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줄었음
- 발행 금액도 지난해 2분기까지 4조8920억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조8300억원으로 약 6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일보 2025.8.12\)](#)

글로벌 기업

1. 엑슨모빌·세브론도 퇴출...덴마크 최대 은행, 화석연료 기업 투자 1700곳 중단

- 덴마크 최대 은행 단스케은행이 기후 대응 계획이 미흡한 화석연료 기업 1700곳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투자 가능 기업 수가 기존 2000곳에서 270곳으로 줄어들었다
- 단스케은행은 자사 운용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전환 계획이 부족한 화석연료 기업 지분을 매각하고, 신뢰할 만한 탄소 감축 계획을 갖춘 기업 비중을 확대했다고 설명함

[\(임팩트온 2025.8.13\)](#)

2. 포드, 美 공장서 가성비 전기 픽업 만든다...“전기차 생산혁신”

- 포드가 켄터키주 루이빌 공장을 개조해 대당 3만달러(약 4200만원)부터 시작하는 전기 픽업트럭을 대량 생산할 계획을 밝힘
- 회사는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투입해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2027년부터 범용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한 중형 4도어 전기 픽업트럭을 생산할 예정임

[\(디지털타임스 2025.8.12\)](#)

3. 테슬라, 영국서 전력 공급 사업...전기차 판매부진 만회 주목

- 테슬라가 영국 에너지 규제당국 오프젬(Ofgem)에 전기 공급 사업자 허가를 신청했으며, 승인 시 현지 대형 에너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됨
-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부진을 겪는 테슬라가 영국 전력 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 다각화와 실적 만회를 노리는 행보로 풀이됨

[\(뉴스퀘스트 2025.8.11\)](#)

4. 美 그린수소 사업 접은 포테스큐, 中서 용도 제한 없는 2조7400억 대출 확보

- 호주 포테스큐 메탈그룹이 중국 금융권에서 142억위안(약 2조74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 론을 확보했으며,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ICBC)이 주도하고 글로벌 금융사들이 참여함
- 이번 자금은 5년 만기, 연 3.8% 조건으로 제공되며 용도 제한이 없어 일반 운영과 탈탄소화 계획, 중국 철강업계와의 녹색철강 협력에 활용될 예정임. 앤드류 포레스트 포테스큐 회장은 이번 대출 확정 후 “미국이 세계 최대 산업에서 후퇴하는 동안, 중국과 포테스큐는 글로벌 녹색 산업 혁명을 주도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함

[\(임팩트온 2025.8.11\)](#)

국내 기업

1.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속도...내년 착공 가시화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전략물자 비축 거점으로 조성됨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한 설계 용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며, 공사는 내년 초 시작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아시아투데이 2025.8.13\)](#)

2. LS에코에너지, 베트남과 해저케이블 공장 설립 협약 체결

-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베트남과 해저케이블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위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함

- 양측은 베트남 푸미항에 공장과 전용 부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인허가 절차·투자 규모·지분 구조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JV 설립을 추진할 예정임

[\(이뉴스투데이 2025.8.12\)](#)

3. 현대제철, 글로벌 CCUS 컨소시엄 참여...동남아·호주 북부에 탄소저장 허브 공동 발굴

- 현대제철이 BHP, 세브론, 미쓰이상사, JSW스틸, AM/NS 인디아 등과 함께 'CCUS 허브 스터디'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아 최초의 산업계 주도 글로벌 CCUS 프로젝트에 참여함

- 컨소시엄은 동남아와 호주 북부 지역에서 탄소저장 허브 공동 발굴을 추진하며, 현대제철은 철강 업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탄소중립 전환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폴리뉴스 2025.8.12\)](#)

4. '폭염 청구서 161조 원'...한국 10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41.2억 톤

-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2011~2023년 한국 10대 다배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41.2억톤이 전 세계 폭염으로 인한 경제 손실에 약 161조원 규모로 기여했다고 분석함

-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가 전체 손실 기여액의 58%(약 93조 원)를 차지했으며, 포스코의 기여액은 약 34조 원으로 단일 기업 중 최대 배출량을 기록했지만 발전 5사 합계의 2.6분의 1 수준임

[\(이코리아 2025.8.11\)](#)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8.8(금) ~ 2025.8.14(목)

제공일시 2025 8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英, 송전망 확충·스마트미터 규제 강화 병행...송전탑 인근 가구에 요금 감면

- 영국 정부가 신규 송전탑·송전선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가구당 매년 최대 250파운드(약 33만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함. 이는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주민 반발을 완화하고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임
- 해당 전략은 2030년까지 청정·자급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플랜 포 체인지(Plan for Change)’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최소 95% 청정 전력 달성 ▲넷제로 전환 가속 ▲잉글랜드 150개 이상 주요 인프라 신속 인허가 등을 포함함
- 정부는 2030년까지 지난 10년간 구축한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송전망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연결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송전탑·변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 경관 훼손 문제로 인한 주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 보상을 병행함
- 미아타 판볼레 영국 에너지소비자 담당 장관은 “자국에서 생산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혜택과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같은 날 정부는 ‘스마트미터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설치·수리 지연 시 공급업체가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2026년부터는 설치 대기 기간을 6주 이하로 단축하고, 스마트 모드가 중단된 계량기는 90일 이내 수리를 의무화함
-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설치 지연 또는 수리 지연 시 보상 의무를 강화하고, 스마트미터 설치 과정과 권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를 제작해 ‘소비자 현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업계는 대체로 이번 규제 강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 영국 에너지산업협회 에너지UK의 다라 비야스 최고경영자는 “영국의 전력 인프라는 수십 년 전에 구축돼 미래 수요에 맞지 않는다”며 “송전망 확충은 시급하며 청정에너지가 안정적이고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면서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스마트 에너지 GB의 댄 브룩 최고경영자도 “최근 18개월간 스마트미터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번 기술 개선과 안내서 발간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오프젬은 이번 조치가 영국 전역의 에너지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2030년까지 청정·자급형 에너지 체계 완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함

[\(임팩트우 2025.8.10\)](#)